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정책 방향 소통의 장 마련

- 신기술 기반 정책·연구 발전 방향 공유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 AI·디지털 기술 활용 식품 안전 혁신 사례와 국제 동향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식품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제20회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을 통해 ‘GMO 식품 표시 제도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기술 기반 식품 안전 발전과 적용’을 주제로 개최되며, AI·디지털 기술 등 첨단기술의 식품산업 적용 사례와 신기술 식품의 안전성, 국제 동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발표 내용은 ▲딥러닝·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내 미생물 위해 요소 탐지의 가능성 ▲식품 안전의 미래 전략: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표준 ▲신기술 식품의 안전성과 국제 동향, ▲GMO 식품 표시 제도와 정책 방향으로, 국내·외 학계·업계 등이 참여하여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특히, ‘GMO 식품 표시 제도와 정책 방향’ 발표에서는 지난해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배경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한다. 아울러, GMO 표시 제도가 안전성 여부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라는 점도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GMO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GMO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학계·산업계·소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제20회 식품안전평가연구회 심포지엄 계획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조 (043-719-2191)
		담당자	주무관	김현정 (043-719-219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오염물질과	책임자	과 장	김진숙 (043-719-4251)
		담당자	연구관	박나영 (043-719-4253)



□ **개요**

- **(주제)** 신기술 기반 식품 안전 발전과 적용(한국식품과학회 연계)
 - ※ '26년 한국식품과학회 주제 : '식품과학·생물자원·생명공학·인간건강을 연결하는 중개적 허브'
- **(일시 및 장소)** '26. 7. 1(수) 15:10 ~ 17:10 / 대전컨벤션센터
- **(주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안전평가연구회

□ **세부일정**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15:10~ 15:20	10'	인사말씀	이순호 부장 (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15:20 ~ 15:45	25'	딥러닝·빅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내 미생물 위해요소 탐지의 가능성 (The potential of deep learning and big data for detecting microbial risks in food)	박현우 교수 (고려대 식품생명공학과)
15:45 ~ 16:10	25'	식품안전의 미래 전략: AX/DX 전환과 글로벌 표준 (The future of food safety: AX/DX implementation and global standards)	강민철 상무 (풀무원)
16:10 ~ 16:35	25'	신기술 식품의 안전성과 국제 동향 (Safety of biotechnology-derived foods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trends)	김해영 교수 (경희대 식품생명공학과)
16:35 ~ 17:00	25'	GMO 식품 표시 제도와 정책 방향 (GMO labeling system and policy direction)	서동훈 과장 (서울청 운영지원과)
17:00 ~ 17:10	10'	질의응답 및 마무리	김진숙 과장 (평가원 오염물질과)